

야구 보면서 제일 답답한 순간이 있잖아요. “오늘 하는 거 맞나?” 싶다가 찾아보면 경기 시작 시간이 이미 지나 있거나, 중계 채널이랑 시간표가 어긋나 있는 경우요. 특히 KBO는 시즌 내내 시간대가 비교적 일정한 편이지만, 후반부로 가면 시작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서 더 자주 생깁니다. MLB는 시차 때문에 더 민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중계 볼 때마다 “일정에서 TV/RADIO까지 같이 확인”하는 쪽으로 습관을 잡았어요. 이게 결국 시행착오를 줄여주더라고요.

아래는 KBO와 MLB를 둘 다 보면서, TV나 라디오 편성 정보를 일정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맞추는 현실적인 방법 정리입니다. 검색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체감이 꽤 큼니다.

왜 일정에서 TV/RADIO 편성을 같이 봐야 하나면

야구중계는 결국 “경기 자체”가 먼저고, 그 다음이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는 보통 경기 시작 시각만 맞고, TV/RADIO 편성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 공식 일정 페이지는 그날 경기와 함께 시작 시각, 장소, 그리고 TV/RADIO 편성, 결과까지 묶어서 보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KBO 공식 사이트는 일정/결과와 순위 페이지를 운영하고, 월별 일정이나 일일 일정에서 경기 시간, 장소, TV/RADIO 편성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MLB도 schedule 페이지에서 당일 경기 흐름과 팀별 일정 같은 기본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핵심은 “최신 변동을 반영한 일정”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엔 “어제 본 중계 예고”를 다음날에도 그대로 믿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당일에 확인해보면 시작 시간이랑 편성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경기 당일 기준으로 일정 페이지를 먼저 열어보고, 그 다음에 시청 준비를 합니다. 이 순서가 생각보다 차이를 만들어요.

KBO: 시즌 흐름과, 후반부 시작 시간 변동 감 잡기

KBO는 2026 정규시즌이 3월 28일 개막이에요.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를 치르고, 개막전은 잠실, 대전, 문학, 대구, 창원 5개 구장에서 열립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시작이 언제고 몇 경기인지” 같은 그림이고, 실제로 야구중계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작 시각이 더 중요하죠. KBO는 잔여 경기 편성 공지 기준으로, 9월 15일 이후에는 시작 시간이 평일 18:30, 토요일 17:00, 일요일과 공휴일 14:00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일정표 문구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데, 저는 여기서 체감이 크게 왔어요. 특히 “평소엔 19시쯤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저녁 루틴을 짜는 사람들은 후반부에 딱 걸립니다. 주중은 18:30이면 생각보다 이릅니다. 그래서 저는 9월 중순부터는 달력 앱 알림도 한 번 더 손보게 돼요. 이렇게 해두면 “오늘 경기 있네?” 하며 늦게 들어가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야구중계를 볼 때는 취소나 순연 같은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건 공식 일정 페이지가 가장 마지막에 반영해줍니다. 그래서 편성 확인은 “그날 그 화면”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안전해요.

KBO에서 TV/RADIO 편성 정보를 뽑아내는 실제 흐름

KBO 일정 페이지는 월별 일정, 일일 일정 형태로 접근이 가능하고, 경기 시간, 장소, TV/RADIO 편성과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예요. 저는 보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먼저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일일 일정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기 리스트가 뜨는 것 자체보다, 각 경기마다 시작 시각이랑 중계 편성이 같이 표시되는지예요. TV로 볼 건지, 라디오로 들을 건지에 따라 확인할 포인트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일정 페이지에서 한 번에 정리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어요. “이미 중계 시작했나?” 같은 상황이에요. 그럴 땐 일일 일정에서 시작 시간을 확인하고, 방송 편성이 함께 적혀 있는 라인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이러면 ‘중계 링크만 보고 시간은 놓친다’ 같은 실수가 줄어요.

여기서 경험상 작은 팁이 하나 있어요. 같은 날이라도 더블헤더처럼 경기 개수가 늘어나면, 사람 머리가 빨리 헛갈려요. 그래서 경기마다 시작 시간이 어떻게 겹치는지부터 보고, 내가 볼 경기 하나를 먼저 고른 다음에 중계 편성 확인을 합니다. 계획이 먼저고 채널 확인이 나중이어야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MLB: 시차 때문에 더더욱 “일정에서 확인”이 맞는 이유

MLB는 2026 시즌이 3월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뉴욕 양키스전으로 시작하고, 3월 26일이 본격적인 Opening Day예요. Opening Day에 대해선 첫 경기 시작 시간이 ET 기준으로 4:00 p.m. ET로 공지된 경기와 8:05 p.m. ET 경기 등이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한국이죠. 한국은 KST(UTC+9)이고, 미국 동부시간(ET)은 시기에 따라 UTC-5 또는 서머타임 UTC-4를 사용하니까 한국이 13시간 또는 14시간 빠릅니다. 그래서 MLB중계 시청은 대체로 한국 기준으로 “다음날 오전에서 낮 시간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제가 자주 겪는 함정은, 시간 변환을 감으로만 하면 틀리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시즌 초반이나 서머타임 경계 시즌처럼 변수가 있을 때는 “대충 13시간 빠면 되겠지”로 가다가 하루 타이밍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B는 일정 확인을 더 강하게 가져가요.

MLB schedule 페이지에서 당일 경기와 팀별 일정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에서 보는 시간대는 시차 때문에 매번 체감이 [mlb중계](#) 다릅니다. 결국 “언제 시작하는지”는 일정 기준으로 잡고, “내가 한국에서 몇 시에 보게 되는지”는 그 다음에 변환해서 준비하는 방식이 안정적이에요.



MLB 시청 시간을 한국으로 옮기는 방식, 감 대신 숫자로

MLB중계는 결국 “ET 시작 시각”을 “KST 시작 시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두 단계로 갑니다.

첫째, ET 기준 시작 시간을 확인합니다. Opening Day처럼 4:00 p.m. ET, 8:05 p.m. ET 같은 식으로 공지된 경우가 있어요.

둘째, 한국이 13시간 또는 14시간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변환합니다. 이 부분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일정 변환 전에 “지금이 13시간 차인지 14시간 차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 오늘 새벽이 아니라 오전이네” 같은 감각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MLB는 하루만 늦어도 통째로 놓치는 경우가 생기니까, 숫자로 고정하는 습관이 꽤 돕니다.

야구중계사이트를 볼 땐 결국 ‘공식 일정 반영 여부’를 따져야 함

야구중계사이트를 찾는 건 이해돼요. [야구중계사이트](#) 접속은 편하고 한눈에 정리돼 보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항상 마지막에 공식 일정 페이지로 교차 확인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구중계사이트 정보도 유용할 수 있지만,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최신 변동을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체크 포인트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경기 시작 시각이 바뀌었는지, 우천 취소나 순연 같은 변동이 반영됐는지, 그리고 TV/RADIO 편성이 맞는지.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준비가 편해지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당일 멘탈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제가 쓰는 짧은 확인 루틴을 적어볼게요. 리스트로 딱 필요한 것만 모았습니다.

- 오늘 날짜의 일일 일정 화면에서 경기 시작 시각을 먼저 확인한다
- 경기 항목에 표시된 TV/RADIO 편성을 같이 본다
- 우천 취소나 순연 같은 최신 변동이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 같은 날 경기 개수가 많을 때는 “내가 볼 경기 1개”부터 고른다
- MLB는 ET 시작 시각과 한국 시차(13시간 또는 14시간)를 숫자로 맞춘다

이 순서가 귀찮아 보여도, 막상 한 번 틀리면 시간을 다시 복구해야 해서 결국 더 손해더라고요.

KBO, MLB 함께 볼 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

KBO 야구중계와 MLB중계를 둘 다 챙기다 보면, 편성 확인을 해도 피곤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날은 KBO가 저녁, MLB는 낮”처럼 동시에 겹칠 수도 있고, 반대로 둘 중 하나는 늦게 끝나서 다음날 루틴까지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청 플랫폼 선택이에요. KBO는 TV와 라디오 편성이 일정 화면에 함께 표시되지만, MLB는 일정 확인은 schedule에서 출발하고, 한국에서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과하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일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확실히 잡고, 나머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예요.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KBO처럼 시작 시간이 바뀌는 구간이 있으면, MLB와 겹치면서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 이후에는 KBO 평일 시작이 18:30으로 안내됩니다. 이때 MLB 시청 시간이 한국 기준으로 오전에서 낮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면, 같은 날에 두 리그가 충돌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날은 “KBO는 라디오로 듣고, MLB는 TV로 본다”처럼 역할 분담을 미리 정하는 편입니다. 채널을 바꾸는 피로를 줄이려는 선택이에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편성 확인을 ‘일상’으로 만들면 편해짐

처음엔 일정 확인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침에 MLB 일정 보고, 저녁에 KBO 편성 확인하는 식으로 하루 흐름이 잡히면 오히려 편해져요.

저 같은 경우, 주말에는 라인업이 바뀌는 느낌이 강해서 시작 시간 감각이 더 무뎌지거든요. KBO는 토요일이 17:00, 일요일과 공휴일이 14:00으로 안내되는 구간이 있어서, 주말 루틴을 고정해두면 덜 흔들립니다. “주말은 무조건 14시나 17시”라고 외워버리는 건 오히려 위험하지만, 최소한 시즌 후반부에는 시작 시간이 이렇게 간다는 점만 머릿속에 있으면 준비가 빨라져요.

MLB도 마찬가지예요. ET 기준 시작 시간이 공지된 형태로 제공될 때가 있고, 한국에서는 그걸 시차로 옮기면 일정이 명확해집니다. 이걸 습관으로 잡아두면, 중계 시간 때문에 하루를 망치지 않게 돼요. 야구가 재미있어야지, 일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아깝잖아요.

마지막으로, “KBO 야구중계, TV/RADIO 편성 정보”는 이렇게 잡아두면 된다

결국 정답은 하나예요. KBO든 MLB든, 중계를 보기 전에는 공식 일정에서 시작 시각과 TV/RADIO 편성을 확인하고, 그걸 기준으로 시청 준비를 하는 것. 이 방식이 제일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더라도, 야구중계사이트에서 먼저 확정 짓기보다는 “공식 일정 반영 여부”를 마지막에 교차 확인하면 좋아요. 키워드로 야구중계나 mlb중계를 찾는 건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 화면이 최종 기준이

됩니다. 야구중계사이트를 보더라도 거기서 끝내지 않고, 공식 일정과 맞춰보는 습관만 있어도 실패 확률이 확 줄어요.

원하면, 당신이 주로 보는 시간대가 평일인지 주말인지, TV로 보는지 라디오로 듣는지 알려줘요. 그 기준으로 KBO는 후반부 시작 시간 변동까지 포함해서, MLB는 시차 때문에 어떤 날이 특히 꼬이기 쉬운지 감 잡는 방식으로 더 구체적인 루틴도 같이 잡아줄게요.